

# 고흥, 우주항공·방위산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산·학·연·군 네트워크…내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공영민 군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산업 성장 실현”

고흥군이 전남 우주항공·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산·학·연·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학교(여수) RISE사업단 주관으로 여수시에서 열린 ‘우주항공·방위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역 산학연의 우주항공·방위산업의 융합 전략과 지역 기반 우주방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 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연구·인력 양성 기능과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우주항공·방위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공모 예정인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분야 신규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국가 우주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인프라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2 우주센터’를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내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우주항공산업 전문 지원기관 부재를 해소하고 관련 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고흥군은 최근 전남대학교(여수) RISE사업단 주관으로 여수시에서 열린 ‘우주항공·방위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역 산학연의 우주항공·방위산업의 융합 전략과 지역 기반 우주방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반과 제도적 틀을 확보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발사체산업 지산학연 연합캠퍼스’와 우주산

업 관련 대규모 전시·체험 시설인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등 교육·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정주 여건과 산업인프라를 모두 갖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 거점 대학의 연구·인재 양성 역량과 고흥의 우주항공 인프라가 연계될 경우, 고흥은 우주항공·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기업·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우주항공·방위산업의 동반 성장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기억되는 순천여행’…관광 현장서 답을 찾다

순천시는 최근 어울림체육센터에서 ‘2025 순천 관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명의 관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데 동안 순천 관광 현장을 지켜온 관광인들의 노고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를 비롯해 외식·숙박·여행업 관계자, 마을호스트,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프로그램 협력업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순천 관광을 함께 만들어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우리 모두가 만드는 순천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공연과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공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2025 순천 관광의 날’ 행사에서 청년 연극단 각진녀석들이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다.

나의 순천’은 관광택시, 마을스테이, 해설사 등 시민이 주체가 된 관광 현장을 담아

## 시, ‘관광의 날’ 행사 성료 유공자 표창·네트워킹 등

표창이 진행됐으며, 공식 일정 이후에는 참여자 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는 내년에도 현장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광 정책을 통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무는 도시, 기억되는 순천여행’을 만들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은 지원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순천 관광과 지역경제를 움직인 주인공은 현장에서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사람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치유산업과 연계한 장기 체류 관광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구례, 내년 전남체육대회 준비 개·폐회식 연출 등 상황 공유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및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세부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오수미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원장과 읍·면장 등 군 관계자와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구례군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30여명이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남체전TF팀이 경기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했으며, 공개행사 대행사가 개·폐회식을 포함한 공개행사 연출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성화 행사, 개·폐회식 연출 방향, 종목별 경기 운영 등 대회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하고, 교통·안전·홍보·숙박·환경정비 등 분야별 준비를 본격화해 군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전남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수미 부군수는 “14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각 부서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총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각 부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 광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경쟁력 강화

### 홍쌍리 된장·고추장 세트 등 13개 추가 선정

광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품목을 접수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3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은 나물밥묵자, 매실 워터젤리, 부추동결 건조가루, 로스팅차세트, 청매실원(2호세트), 홍쌍리 된장·고추장 세트, 김부자 선물 1·2호, 답례 1호 목·어깨 은열찜질기, 전기방석, 손난로, 은열 찜질기, 전기담요,

황매수 워터젤리, 함초뜸매실 선물세트 2호로 1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71개 품목(46개 업체)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추가 선정에서는 지난 11월 발사된 누리호에 사용된 핵심 구성품 중 하나인 히터를 개발한 파루전자의 전기방석과 손난로 등 은열 제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한 나물밥묵자와 매실 워터젤리 등은 1인 가구와 소규모 가구를 고려한 소포장 형태로 구성돼 간편성과 위생

성을 동시에 갖춘 점에서 기부자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선정 결과는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답례품은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급업체 설명회와 고향사랑e음 등록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역 내 우수한 특산품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도 정기적인 공모를 통해 답례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자에게 매년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 여수, 주소정책 업무 유공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

여수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주소정보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책의 정확성과 활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여수시는 체계적인 주

소정보 정비와 시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여수시는 올해 주소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와 신규 도로·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주소 부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정확한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막회를 앞두고 ‘다섬이’ 캐릭터를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결합한 스마트 주소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QR코드를 통해 주변 관광·편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친근하고 직관적인 주소 안내 체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소정책의 품질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보성군은 내년 2월 18일까지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운영한다.

## “보성열선루서 겨울밤 빛의 향연 즐겨요”

### 이순신 역사문화공원…내년 2월 18일까지 운영

보성군은 내년 2월 18일까지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운영해 이순신 장군의 충의와 결의를 빛으로 형상화한 겨울 야경을 선보인다.

이번 경관조명은 2025년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준공을 기념하고, 겨울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원 전반에 조성된 조명 연출은 역사적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겨울밤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야간 관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관 조명 운영 기간 동안 공원 내 야간 관광안내소도 함께 운영된다.

안내소에서는 보성의 문화유산·역사 해설, 관광 동선 및 주변 관광 정보 제공,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객의 편의성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열선루’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던 역사적 장소로, 충성과 책임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다. 군은 이번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열선루의 역사적 가치와 서사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성을 대표하는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열선루에서 겨울밤을 빛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계절별·주제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